

무안군 삼향읍주민자치위, 실시간방송 판매 실전방송 호평

매주 월요일 '삼향있다' 쇼호스트 양성 교육 총 4차례 추진 첫 방송 53건 130만원 매출 올리기도... "일자리 창출 기여"

무안군 삼향읍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부터 매주 월요일(14:00~17:00) '삼향있다'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상품안내자(쇼호스트) 양성 교육을 총 4차례에 걸쳐 추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상품안내자 해피유진 강사를 초빙하고 상품 판매·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신규진입 상품안내자를 서로 연계하여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상품판매 기획, 방송 원고작성, 장비 및 소품 세팅, 실전 모의방송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마지막 수업이었던 지난 6일에는 일로 읍에 있는 무안군공유스튜디오를 방문해서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인 새우, 도라지배즙, 작두콩차 등을 네이바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하였으며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53건 130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간 방송 판매를 활용하겠다"고 첫 방송의 소감을 전했다.

고성운 삼향읍주민자치위원장은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실시간 방송 판매를 통한 온라인 판매개척으로 우리지역의 상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덕 삼향읍장은 "이후로도 실시간 방송 판매 상품안내자 12명의 수료생들과 함께 무안군 특산품으로 방송을 2~3차례 더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확보...사업추진 탄력

영광군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2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투자 계획에 대해 서면·현장·대면 평가를 거쳐 내년 배분 기금을 결정했다.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S등급 144억원(6%·4개 지자체), A등급 112억원(15%·14개 지자체), B등급 80억원(30%·26개 지자체), C등급 64억원(50%·45개 지자체)씩 해당 지자체에 기금을 차등 배분했다. 영광군은 기초 기금으로 B등급 80억원을 확보했다.

정주여건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 관광 활성화를 연계한 생활 인구 확대, 청년 농업인의 영농과 경제적 지원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9호점)에 선정돼 광역기금 4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총사업비 66억원이 투입되는 '영광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한다.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통한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국 1위인 영광군의 합계출산율 수치를 지속해서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해당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활력 도시 영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올해 멸종위기 곤충 1종·미기록종 4종 신규 발견

매년 생물종 발굴·조사 실시...다양한 생물 서식지 입증

신안군은 올해 신규 생물종 발굴·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1종과 미기록종 4종 등 총 5종의 곤충을 새로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갯벌 등 주요 생물서식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멸종위기종 물장군은 노린

재목에 속하며 몸길이가 최대 7mm에 달해 우리나라 노린재목 곤충 중 가장 크다.

거대한 크기와 왕성한 식욕으로 물속 최상위 포식자인 물장군은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등 다양한 수생생물들을 잡아먹으며, 자기 몸보다 거대한 개구리, 남생이, 살모사까지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장군의 서식지는 주로 논, 작은 연못, 저수지 등 흐르지 않는 물가 주변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농경지의 감소로 연못, 저수지 등의 축소로 현재 내륙의 서식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발견된 미기록종 4종은 아직 정식 국명은 없다. 신안군은 이번 생물종 조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논문 발표 등을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올릴 계획이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원활한 보상위해 제5차 보상협의회 개최



함평군은 8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의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제5차 보상협의회가 지난 6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10명의 보상협의회 위원이 참석해 지난 4차 회의 주민대표 요구사항의 국립축산과학원의 답변 및 보상협의회 위원 발의 안전에 대한 보상 관련 논의를 실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토지이해관계자 위원들은 지난해 진행된 상생(갈등)조정협의체의 7가지 협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1차 손실보상 협의의 감정평가내역 공개 요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표본형태(지역별, 지목별, 수목 종류별)의 감정평가내역 공개를 재요구 하였다.

또한, 축산, 수목, 영농·어업시설 등 전문영역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이의신청 대상 및 앞으로 평가될 시설에 대해 감정평가 재의뢰를 요구하였다.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는 "5차 보상협의회 협의사항 3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 보상협의회 명의로 답변을 요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원활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암군, 군립하정응미술관 '꿈꾸는 작은 화가들' 전시회

영암군은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이 내년 3월까지 '꿈꾸는 작은 화가들' 전시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 동일한 이름의 교육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영암의 초등학교 4~6학년생들은 영암 출신 미술인 모임인 월출미술인회 정선취·최정희 작가를 멘토로 작품을 준비했다.

이들은 지역의 문화공간을 둘러보며 포착한 다양한 주제로 상상력을 발휘해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기술과 미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는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구름마늘과 LED를 소재로 새로운 미디어 작품을 제작했다. 이 밖에도 건축의 3D 요소를 배우며 제작한 정크아트 작품, 스티로폼을 활용해 돌을 형상화한 작품 등 색다른 작품들을 만들었다. 이 작품 모두를 이번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